



■ 자유학기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 예고보도(2016.05.16.)

5. 17(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자유학기제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올해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관련 4회 연속토론회를 시작함.
- ▲ 지난 5월 4일(수), 1차 토론회에서는 자유학기제 정책이 도입된 배경과 전개과정 및 현재 상황을 살펴봄. 특히 자유학기제의 정책 목적이 학교 수업과 평가, 기록의 개선에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함.
- ▲ 이번 5월 17일(화) 오후 2시, 2차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사례로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일본 청소년 체험활동 △경기도 꿈이룸학교, △덴마크 애프터스쿨레 등을 살펴봄.

사교육걱정은 지난 5월 4일부터 올해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관련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화) 오후 2시에는 2차 토론회를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1차 토론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자유학기제 정책 추진 과정과 교육적 의미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한국형 자유학기제가 처음 진로체험 중심에서 현재는 수업과 평가의 개선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업과 평가의 개선을 위해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이나 교사의 노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자유학기제 관련 국·내외 사례를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현

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와 일본 청소년 체험활동, △송순재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이며 삶을 위한 교사대학 이사장이 덴마크 애프터스쿨레, △서우철 의정부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꿈이룸학교 사례를 공동 발제합니다. 이에 대해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김은정 선임연구원의 종합 토론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국내외 자유학기제 관련 사례는 자유학기제 올바른 정착 방향 모색에 큰 시사점을 주리라 기대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명 : 자유학기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모색을 위한 4회 연속 토론회

■ 주제 :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 일시 : 5월 17일(화) 오후 2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요 일정

일시	토론회명	■ 발제 □ 토론 (가나다순)
1차 05/04(수) 오후 2시	자유학기제 어떻게 시작했고, 어디까지 왔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열관 교육대학원장(경희대학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상진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숙영(학부모) <input type="checkbox"/> 이수광 선임연구위원(경기도 교육연구원) <input type="checkbox"/> 이종걸 교사(근명중학교, 좋은교사운동)
2차 05/17(화) 오후 2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일랜드, 일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우철 장학사(의정부 교육지원청 꿈이룸학교) : 경기 꿈이룸학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송순재 교수(감리교 신학대학, 삶을 위한 교사대학 이사장) : 덴마크 <input type="checkbox"/> 김은정 선임연구위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차 06/01(수) 오후 2시	자유학기제를 통한 수업·평가의 개선과 확산 가능성을 살핀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김진우 공동대표(좋은교사운동) <input type="checkbox"/> 김덕년 학사(경기도교육청) <input type="checkbox"/> 김선희 수석교사(명일중학교) <input type="checkbox"/> 예혜란 과장(교육부 공교육진흥과) <input type="checkbox"/> 지은림 교수(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4차 06/16(목) 오후 2시	자유학기제를 통한 고입전형 및 고교체제 문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상진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김성천 장학사(경기도교육청) <input type="checkbox"/> 김태훈 교사(용마중학교) <input type="checkbox"/> 성기선 교수(가톨릭대학교, 경기도울곡교육연수원장) <input type="checkbox"/> 이광호 교장(이우학교)

2016. 5.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선임연구원 김은정(02-767-4044/내선번호 503)